

국내 도서관·박물관 소장 고지도의 현황 및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Utilization of Old Map in Library and Museums in Korea

김 지 영 (Gi Young Kim)*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고지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고지도를 이용한 서비스 및 정보제공 등 고지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하여 고지도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기관의 정보검색시스템을 조사하고 해당 웹 사이트에서 고지도 자료 검색 및 정보 접근 방법을 탐색하였다. 이 외에 각 기관의 홈페이지와 도록 및 연구서, 간행물 등을 참고하여 국내 도서관 및 박물관의 고지도 소장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국 국·공립 및 대학 도서관과 박물관 등 76개 기관에 약 2,200여점의 고지도가 소장되어 있었다. 고지도 소장 각 기관에서는 영인본 간행, 전시회 및 도록, 목록 및 총서 등의 연구서 편집서의 간행 등 출판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지도의 희귀성, 유일본 등의 자료적 특성으로 원문 자료의 열람 및 이용이 제한적이다. 고지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지도 정보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학술정보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자료로 고지도 활용을 제안한다. 셋째, 고지도 자료에 대한 지식과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crease access to information on old maps and to discuss efficient ways to utilize old maps, such as providing services and information using old maps. To this end, the information search system of domestic institutions that provide old map information was investigated, and methods of searching for old map data and accessing information were searched on the website. In addition, the current status of the collection of old maps in domestic libraries and museums was analyzed by referring to the homepage, book, research book, and publication of each institu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bout 2,200 old maps were housed in 76 institutions, including national, public, and university libraries and museums nationwide. Each institution in the collection of old maps was carrying out publication business, such as publication of English manuscripts, exhibitions and books, publication of research document edits such as lists and summaries. However, reading and using of original documents are limited due to the rare nature of old maps and the data characteristics of the only one. In order to effectively utilize old maps,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access to old map information services and expand academic information services. Second, it is proposed to use old maps as data for archival construction that reflects the identity of the region. Third,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professional manpower who selects and provides information based on knowledge of old map data and humanities literacy.

키워드: 고지도, 도서관, 박물관, 정보자원, 정보시스템

Old Maps, libraries, Museums, Information Resources, Information System

*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 차장(kimgy@imla.kr)

논문접수일자 : 2024년 2월 19일 논문심사일자 : 2024년 2월 20일 게재확정일자 : 2024년 3월 12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5(1): 97-125, 2024.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4.35.1.097>

※ Copyright © 2024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지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리적 공간을 축소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지도는 여러 가지 현상을 일정한 약속에 따라 기호·문자·색채를 사용하여 공간을 그림의 형태로 축소하여 평면상에 나타낸 것이며 그림의 내용과 표현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Harley & Woodward, 1987). 지도는 지역 및 공간의 위치·거리·방향 등 공간 현상의 투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 등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이 각인된 그림이다(양보경, 1997). 우리나라의 고지도는 우리 국토의 옛 모습을 시각적이고 종합적으로 비추어주는 자료이다.

고지도는 당대의 사회, 역사를 이해하는 다양한 분야에 학문적 접근의 기초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의 역사적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고 복원하는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고지도가 가지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고지도의 보관과 관리 등의 이유로 일반인들의 자료 열람은 제한적이다. 고지도의 소장처가 국공립 및 대학 도서관과 박물관 등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고지도 목록 및 서지정보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1900년대 이후 고지도의 목록과 해제 작업, 원문 이미지 구축 등 정보화 사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고지도 자료에 대한 정보가 기관 홈페이지 및 정보제공 플랫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었다. 고지도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웹 사이트, 전시회, 도록, 간행물 등 다양한 경로로 고지도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고지도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지도학, 역사지리학, 미술사, 서지학 등 다양

한 학문 분야에서 고지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기혁, 2018). 이렇듯 일반인들의 고지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도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고지도에 관련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도의 정보자원에 대한 탐색과 고지도 정보를 활용한 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고지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지도에 대한 학문적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고지도 정보검색시스템 탐색, 고지도의 소장기관 및 보유 현황, 간행 및 보급 현황 등의 분석을 통해 고지도를 활용한 지역정보 제공 및 도서관 서비스 개발 등 도서관 및 박물관 현장에서 고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도서관 및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지도의 소장 현황과 고지도와 관련된 연구서, 간행 및 출판물의 보급 현황을 분석하여 고지도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고지도를 활용한 서비스 및 정보제공 등 고지도의 폭넓고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첫째, 고지도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용어 사전, 지리학 사전 등을 통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자의 논고 등을 살펴보고 고지도의 의미와 가치를 정리하였다.

둘째, 고지도 목록과 서지정보, 원문 이미지 등 지도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기관의 정보검색시스템을 조사하고 해당 웹 사이트에서 고지도 자료 검색 및 정보 접근방법을 탐색하였다. 이 외에 각 기관의 홈페이지와 각 기관에서 발

행하는 도록을 참고하여 국내 도서관 및 박물관의 고지도 소장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최근까지 도서관 및 박물관 등 각 소장 기관에서 발행한 고지도의 영인본, 관련 연구서, 목록 및 해제집, 도록, 전시회 목록 및 도록 등의 발간물 자료들을 분석하여 고지도의 간행과 보급의 추이를 파악하였다.

넷째, 고지도의 연구 및 각종 목적에 맞는 고지도의 정보자원을 탐색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도서관 및 박물관 등 현장에서 다양한 이용자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고지도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에 대하여 논의점을 검토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고지도의 개념

‘고지도(古地圖)’란 ‘오래된 지도’ 혹은 ‘옛 지도’이다. 국립국어원(발행년불명)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고지도란 ‘제작연대가 오래된 지도’, ‘근대적인 투영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의 회화적인 지도를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두산백과』에서는 고지도를 ‘작성연대가 오래되고, 특히 지도제작의 기술사적인 면에서 현대지도와 구별되는 지도’(두산, 2024)로 정의하였으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에서는 ‘근대적인 투영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의 회화적인 지도’로 정의하였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22c).

지리학 분야의 『지리학대사전』에서 고지도는 ‘16세기 이후 근대적인 측량, 제도, 인쇄술에 의

해 제작된 지도 이전의 지도류’(마문길, 1993), 『자연지리학사전』에는 ‘정확하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지도가 제작되기 이전 시대의 회화적인 지도’라고 정의하고 있다(한국지리정보연구회, 2004). 반면, 문헌정보학 분야의 리스토펜아(2022)의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는 ‘고서’에 대한 정의는 있으나 ‘고지도’에 대한 별도의 항목이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고지도 연구자들이 정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찬(1991)은 고지도를 ‘전통적인 지도제작 기술에 의한 옛 지도로서 현재의 측량기술에 의하지 않은 지도’로 규정하였다. 이혜은(2013)은 한국의 고지도를 ‘근대적인 측량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한국의 전통적인 제작 방법으로 1910년 이전에 인쇄되거나 필사된 지도’라고 정의하였다. 근현대지도와 고지도를 구분하는 시기적인 기준으로 이찬(1991), 양보경, 양윤정, 이명희(2016), 김기혁(2006)은 1910년 이전에 작성된 지도들을 고지도로 보았고, 김주환(2009)은 1876년 개항 이후 서구의 새로운 인쇄기술과 지도제작 기술이 도입된 시기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동아시아의 문화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삼국·고려시대부터 지리지와 함께 지도제작이 이루어졌으며 조선시대에 국가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본격적으로 제작되었다(김기혁, 2006). 현재 전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지도는 주로 조선시대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지도의 재질은 대부분 종이에 그린 것이며 지도들의 형태도 다양하다. 지역 간 문화교류와 당시인들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세계지도, 국토에 대한 인식체계가 반영된 전도, 지방행정구역인 부·목·군·현을 그린 군현지도, 왕권을 상징하는 장소인 도성

을 그린 도성도, 국방이라는 군사적 목적으로 시작되는 관방지도 등으로 크게 분류되며, 이외에도 궁궐의 배치를 그린 궁궐도, 하늘의 별 자리를 그린 천문도, 토지의 소유 관계를 경계로 표시한 지적도 등 다양한 유형의 지도가 제작되었다(오상학, 2005a).

서양에서 지도는 인간 세계의 사물, 개념, 조건, 과정 또는 사건에 대한 공간적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그래픽 표현이라고 정의하였다. 지도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며 지도는 인간 내면의 정신세계와 외부 물리적 세계 사이의 중재자로 인간의 내면과 우주를 이해하는 도구라고 여겨졌다(Harley & Woodward, 1987).

고지도는 당시 세계관과 공간관을 보여주는 과학의 영역이며, 역사적 현상을 이해하고 복원하는 역사의 기록이며, 그 차제로 예술 작품인 귀중한 자료적 가치와 의의를 지닌다.

2.2 선행연구

국내 소장 고지도는 전국의 도서관, 박물관 및 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어 지도의 소장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한편 고지도가 가지는 자료적 희귀성과 표현의 회화성 등 자료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내용의 해석이 부가되어야 활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고지도 연구는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1980년대에 고지도 목록 및 도록집의 간행 등으로 그 연구 범위가 확대되었고 2000년대에 이르러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지도 자료 목록집 발간 및 이미지 공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고지도의 연구가 본격화되었다(김기혁, 2006).

본 논문과 관련된 연구로는 국내 기관의 고지도 소장현황 및 연구동향에 대한 연구, 고지도의 정리와 활용에 대한 연구가 있다.

먼저 국내 기관의 고지도 소장현황 및 고지도 연구 동향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양보경(1997)은 고지도는 우리 국토의 옛 모습을 시각적이고 종합적으로 비추는 유일한 자료로 학문적 연구 자료 및 예술품으로서도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 고지도의 유형과 이용, 주요 소장처, 고지도의 간행, 보급 및 연구 현황 등을 검토하여 고지도의 연구 및 활용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고지도 연구를 위해 지도와 역사학의 학문적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기혁(2006)은 우리나라 도서관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지도의 유형과 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고지도들이 전국 각 기관에 산재되어 소장되어 있으며 도서관과 박물관의 고지도 관리 실태에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각 기관마다 고지도의 서지정보 정리 기준이 상이하며 학예사 및 사서 등 전문인력 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일제 강점기 이후 우리나라 고지도의 연구동향을 시기적으로 분석하여 주요 연구 쟁점을 밝혀낸 연구(김기혁, 2007a)와 후속연구로 전문학회 학술활동을 중심으로 한국 고지도 연구의 최근 동향을 분석한 연구(김기혁, 2018)가 있다. 고지도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과학으로서의 고지도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고지도 소장 기관과의 연대 및 협력, 학문 간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고지도의 정리와 활용과 관련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오상학(2003)은 국내 최대의 고지도 소장처인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고지도 현황과 자료적 가치를 정리하였다. 고지도 자료의 활용방안으로 고지도 목록집과 해제집의 간행, 고지도 활용을 위한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기혁(2007b)은 역사 경관의 복원과 지명 변화의 연구 자료로 고을의 공간을 묘사한 군현지도의 사료적 가치를 제시하고, 군현지도의 활용에 관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군현지도가 지역의 역사적 연구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고지도의 이미지 정보제공, 군현지도의 지리정보 해제를 통한 내용 재구성, 학제간 융합, 지역 개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류동현(2010)은 웹 사이트의 고지도 서비스 구성내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도서관과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고지도 웹 사이트의 서비스 현황을 점검 및 분석하였다. 개선방안으로 고지도의 고유한 자료적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구성과 포털 개념의 고지도 웹 사이트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이혜은(2016)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의 디렉토리 검색에서 지도로 분류된 1,043건의 레코드를 대상으로 서지사항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고지도의 서지 목록을 분석하여 고지도 목록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로, 고지도의 표제 및 발행처 불명 등의 고지도 특성을 고려하여 검색을 위한 고지도의 유형을 분류하고 역사적 맥락에서의 계통분류를 통해 고지도 목록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국내 고지도 소장기관의 현황을 파악한 김기혁(2006)의 연구가 있으며 동저자의 2018년의 연구 이후에 이와 관련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도서관 및 박물관 등 각 기관에서 소장한 고지도에 관한 연구들은 있으나 이용자 및 고지도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의 고지도 이용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서관 및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지도 및 지도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검색시스템을 통해 고지도 현황을 파악하고 고지도의 간행과 보급의 추이를 조사하여 고지도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고지도의 정보검색 및 소장현황

3.1 고지도 정보검색시스템

국내에 고지도를 비롯한 고문헌의 소장정보 및 서지정보 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보검색시스템들이 있다. 고문헌 소장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2022), 규장각한국학연구원(2006b), 한국학중앙연구원(2022a)은 웹 사이트를 통해 소장 자료의 검색, 원문, 해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2024)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는 한국사 주요 기초자료들을 검색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시대별, 주제별로 나누어 가공된 형태의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2006)의 e뮤지엄은 전국 박물관의 소장품 관리시스템인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서비스하는 박물관 협력

망 온라인 사이트이다. 국토지리정보원(2019)의 국토정보플랫폼은 지도자료뿐만 아니라 지리지 및 지명유래집, 근대측량자료 등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검색 사이트이다. 이러한 지도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보검색시스템은 <표 1>과 같으며 해당 웹 사이트에서 고지도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문헌종합목록은 국내의 한국 고문헌을 조사하여 목록, 해제, 원문 등

<표 1> 고지도 정보검색시스템 및 검색 메뉴

	
<p>한국고문헌종합목록 https://www.nl.go.kr/korcis/index.do 디렉토리검색 > 내용형식 > 지도(地圖) 1,048</p>	<p>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https://kyudb.snu.ac.kr/ 고지도 > 전체목록/지도별보기/지역별보기</p>
	
<p>디지털장서각 https://jsg.aks.ac.kr/ 주제분류 > 사부(史部)-지리류(地理類)-지도(地圖)</p>	<p>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조서시대사료DB > 목록·자료집(한국고지도목록)</p>
	
<p>e뮤지엄 https://www.emuseum.go.kr/main 시대별 검색-국가-시대-재질-분류(지도)</p>	<p>국토정보플랫폼 https://map.ngii.go.kr/mn/mainPage.do 공간정보 > 역사지도정보</p>

의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종합목록이다. 한국고문헌종합목록시스템은 2022년 1월에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의 이용자 누리집·통합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다(국립중앙도서관, 2022). 한국고문헌종합목록은 소장자료검색, 디렉토리검색, 신규구축목록, 주제명표목표, 연계기관검색, 인물검색 등으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지도는 디렉토리 검색을 통해 내용형식 메뉴에서 “지도(地圖) 1,048”로 분류되어 있다. 지도의 제목, 저자, 발행자, 발행년, 판종, [MARC보기] 등의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지도가 소장되어 있는 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목차, 해제, 원문 연계, PDF, 텍스트 메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도 소장기관은 국내 국립도서관 및 박물관, 사립박물관과 해외 프랑스 국립도서관, 미국 대학도서관, 일본의 대학도서관 등 총 25개였으며, 소장기관의 지도 1,048건의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 고지도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규장각의 원문검색서비스 웹 사이트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고도서, 고문서, 고지도, 편년사, 의궤 등의 자료의 목록, 서지정보, 해제와 원문 이미지, 텍스트 정보를 제공한다. 역사지리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규장각 소장 주요 고지도와 지리지 및 읍지를 활용하여 옛 지명, 수치정보를 비롯하여 조선 후기의 주요 고지도 중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와 『동여도(東輿圖)』, 『청구요람(靑邱要覽)』의 전국지도 3종, ‘1872년 지방지도’, 『조선지도(朝鮮地圖)』, 『해동지도(海東地圖)』의 군현지도 3종 등 6종의 고지도의 디지털 지도를 제공한다. 고지도 메뉴에는 규장각 소장 약 220여종 6,000매

의 고지도를 필사본(회화식), 필사본(방안식), 필사본(기타), 목판본(방안식), 목판본(기타) 항목으로 나누어 유형별 지역별로 분류되어 있다. 각각의 고지도 검색으로 서지사항과 원문이미지 및 개별지도 해제 등 원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a).

장서각은 조선 왕실 도서관으로 왕실의 고문헌들을 수집 및 관리하는 도서관연구소이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22b). 디지털 장서각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88,721건의 왕실 문헌을 중심으로 97,334건의 수집 고전적을 디지털화하여 공개하고 있다. 디지털장서각의 소장 자료는 유형 분류, 주제분류, 수집분류의 메뉴로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다. 고지도는 주제분류 중 사부(史部)-지리류(地理類)-지도(地圖) 메뉴를 통해서 고지도 목록을 검색하고 각각 지도의 서지, 해제, 이미지, xml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2024)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는 한국사 주요 자료를 검색하고 자료의 본문 텍스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역사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은 근대지리정보, 개경지리정보, 삼일운동 GIS, 규장각 역사지리 정보 플랫폼으로 연동되게 구성되어 있다. 고지도에 대한 목록정보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한국고지도목록에서 국립도서관 및 박물관, 대학도서관 및 박물관, 개인 소장 고지도를 포함하여 전국 18개 기관 및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1,512점의 고지도의 목록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2006)의 e뮤지엄은 전국의 박물관 및 미술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 정보 통합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2024년 2월 7일 기준으로 e뮤지엄의 소장품 공개현황은 358

기관, 2,560,793점의 소장품, 전체 2,846,793건의 이미지 제공 등 소장정보 및 정보서비스 데이터 통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관의 소장품 검색에서 제공하는 메뉴는 박물관 유형별 검색, 지역별 검색 시대별 검색, 이미지 검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고지도에 대한 박물관 기관별 소장정보를 검색하기 위하여 시대별 검색-국가(한국)-시대(조선)-재질(종이)-분류(전통과학-지리-지도-전체)의 상세검색을 통해 국·공립박물관 소장 고지도 정보를 검색하여 총 49개 기관, 1,069건의 고지도 소장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2019)의 국토정보플랫폼은 역사지도뿐 아니라 근현대 지도정보, 수치지도, 항공사진 등 공간정보에 대한 대한민국 국토의 지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국토정보플랫폼 자료실은 지도자료, 근대측량자료,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지리지 및 지명유래집,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지명사전 등으로 구성되어 과거의 지역과 공간부터 근대 지역의 지명 변화와 공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고지도에 대한 정보는 역사지도정보 메뉴에서 규장각 자료의 서지사항과 고지도 이미지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3.2 고지도의 소장현황

국내 도서관 및 박물관의 소장 고지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보검색시스템 및 각 기관의 홈페이지 소장정보 검색, 고지도 소장 기관의 학예사와 전화면담, 도록의 고지도 목록 확인 등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문헌종합목록과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 고지도 목록 데이터베이스, 국내 박물관 협력망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e뮤지엄의 고지도 목록과 김기혁(2006) 연구에서 기관별 소장 고지도 현황 자료의 대학박물관을 대상으로 고지도 소장 현황을 파악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문헌종합목록에는 국내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국회도서관 등 국립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립박물관, 성암고서박물관 등 사립박물관 및 해외 프랑스 국립도서관, 미국 대학도서관, 일본의 대학도서관 등 총 25개 기관의 소장 지도 목록1,048건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에서 사립 및 개인 소장 지도와 해외 기관 소장 지도목록을 제외하고 국내의 도서관 및 박물관 18개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총 923건의 고지도의 소장정보를 조사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994년에 전국 각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지도 정보를 종합하기 위해 한국사 연구 지원과제로 고지도 DB를 구축하였다(김기혁, 2006).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한국 고지도 목록 데이터베이스에는 국립도서관 및 박물관, 대학 도서관 및 박물관, 개인 소장 고지도를 포함하여 전국 18개 기관 및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1,512점의 고지도의 목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에서 미술관, 사립박물관 및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를 제외하고 1,456점의 고지도 목록을 정리하였다. 전국의 박물관 및 미술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정보 통합 검색을 제공하는 e뮤지엄의 소장품 공개현황 데이터는 2024년 2월 7일 기준으로 358기관, 2,560,793점의 소장품, 전체 2,846,793건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에서 국내 국·공립박물관 소장 고지도 정보를 검색하여 총 49개 기관, 1,069건의

고지도 소장정보를 조사하였다. 이 중에서 사립박물관 2개 기관, 9점의 고지도를 제외하고 국립박물관 14기관, 272점, 공립박물관 32개 기관 215점, 대학박물관 1개 기관 573점의 고지도 목록을 조사하였다. 각각 고지도 정보제공 데이터베이스의 소장 현황과 비교하여 중복 및 누락된 현황을 보완하고 정리하였다. 이 외에 김기혁(2006) 연구의 '기관별 소장 고지도'에 포함된 대학 도서관 및 대학박물관의 고지도 소장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검색 및 해당 기관의 학예사 및 사서에게 개별 문의하여 확인하였으며 성신여자대학교, 서울시립도서관박물관 등 소장기관에서 간행한 도록을 검토하여 고지도 현황을 파악하였다. 국내 도서관 및 박물관의 기관별 고지도의 소장현황은 <표 2>와 같다.

국공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지도는 5개 기관이 765점, 대학도서관 15개 기관이 208점, 국립박물관 14개 기관이 272점, 공립박물관 32개 기관이 215점, 대학박물관 10개 기관이 783점을 소장하고 있다. 국내 도서관 및 박물관 총 76개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지도는 총 2,243점이다. 도서관은 국·공립 도서관과 대학도서관으로 구분하였으며 국·공립 도서관 중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518점으로 가장 많은 고지도를 소장하고 있다. 이외에 국립중앙도서관이 208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이 31점, 국사편찬위원회가 6점, 국회도서관이 2점을 소장하고 있다. 대학도서관 중 고려대학교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는 115점으로 대학도서관 중 가장 많은 고지도를 소장하고 있다. 이어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32점,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이 14점, 충남대학교 도서관이 10점,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이 각각 8점을 소장하고 있다. 박물관은 국립 및 공립박물관과 대학박물관으로 구분하였다. 국립박물관 중 국립중앙박물관이 132점으로 고지도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으며 이어서 국립민속박물관이 73점, 국토지리정보원지도박물관이 22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19점, 국립전주박물관과 국립대구박물관이 각각 5점을 소장하고 있다. 공립 박물관 중에서는 상주박물관이 가장 많은 41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어서 부산광역시립박물관 29점, 천안박물관 16점, 수원시박물관이 14점을 소장하고 있다. 대학박물관은 영남대학교 박물관이 573점의 고지도를 소장하고 있으며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66점, 고려대학교 박물관이 46점 순이다.

4. 고지도의 간행과 보급

고지도는 필사본이 많으며 필사본은 대체로 유일본으로 소장기관에서는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이용자의 원본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고지도 원본을 보존하면서 연구나 각종 목적에 고지도를 활용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고지도의 영인, 복제본을 간행하는 것이다. 기관에서는 고지도가 수집되면 보존 처리 후 서지 정보를 바탕으로 목록 작성, 해제 작업을 거쳐 고지도의 원본이나 복제본을 이용자에게 공개한다. 고지도를 소장하고 있는 각 기관에서는 영인본 간행, 전시회 및 도록, 목록 및 총서 등의 연구서 편집서의 간행 등을 통하여 고지도의 이용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표 2〉 기관별 고지도 소장현황

No.	소장기관	접수	No.	소장기관	접수	No.	소장기관	접수	
〈국·공립도서관〉			5	국립전주박물관	5	18	임충민공충렬사전서관	3	
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518	6	국립대구박물관	5	19	밀양시립박물관	2	
2	국립중앙도서관*	208	7	국립진주박물관	4	20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	2	
3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31	8	국립청주박물관	3	21	은평역사한옥박물관	2	
4	국사편찬위원회**	6	9	국립춘천박물관	3	22	소수박물관	2	
5	국회도서관*	2	10	국립수목원산림박물관	2	23	창원시립마산박물관	2	
소계			765	11	국립경주박물관	1	24	대구근대역사관	2
〈대학도서관〉			12	국립공주박물관	1	25	광주광역시시립민속박물관	1	
1	고려대학교 도서관**	115	13	국립김해박물관	1	26	제주교육박물관	1	
2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32	14	국립제주박물관	1	27	대관령박물관	1	
3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4	소계		272	28	대구향토역사관	1	
4	충남대학교 도서관*	10	〈공립박물관〉***			29	부평역사	1	
5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8	1	상주박물관	41	30	예천박물관	1	
6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8	2	부산광역시립박물관	32	31	용산역사박물관	1	
7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5	3	원주역사박물관	29	32	동학농민혁명기념관	1	
8	부산대학교 도서관*	4	4	천안박물관	16	소계			215
9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4	5	수원시박물관	14	〈대학박물관〉			
10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	2	6	울산박물관	12	1	영남대학교 박물관***	573	
11	연세대학교 도서관****	2	7	속초시립박물관	8	2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66	
12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1	8	예실박물관	6	3	고려대학교 박물관**	46	
13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도서관**	1	9	전주역사	5	4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32	
14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	1	10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	5	5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28	
15	전남대학교 도서관*	1	11	삼척시립박물관	4	6	승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2	
소계			208	12	용인시박물관	4	7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10
〈국립박물관〉***			13	화성시역사박물관	4	8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4	
1	국립중앙박물관	132	14	여주박물관	3	9	서울대학교 박물관****	1	
2	국립민속박물관	73	15	안양박물관	3	10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1	
3	국토지리정보원지도박물관	22	16	회암사지박물관	3	소계			783
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9	17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3	합계			2,243

* 출처: 한국고문헌종합목록(<https://www.nl.go.kr/korcis/index.do>)
 ** 출처: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
 *** 출처: e뮤지엄(<https://www.emuseum.go.kr/main>)
 **** 출처: 성균관대학교 존경각(<https://east.skku.edu/#/>), 연세대학교 도서관(<https://library.yonsei.ac.kr/>), 육군사관학교(1998), 경희대학교혜정박물관(<https://oldmaps.khu.ac.kr/>),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2013),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https://museum.donga.ac.kr/sites/museum/index.do>), 서울대학교박물관(<https://museum.snu.ac.kr/>), 성균관대학교박물관(<https://swb.skku.edu/museum/index.do>)

4.1 영인본 간행

규장각은 고지도 관련한 전시회, 영인본 제작 및 연구서 등 간행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는 기관이다. 규장각에서 소장한 고지도와 관련된 목록 및 영인간행도서는 〈표 3〉과 같다. 1993년 규장각 소장 고지도 246종을 영인 및 해제하여 제작한 『한국고지도전시회출품목록』

〈표 3〉 규장각의 고지도 목록 및 영인간행도서

간행 기관	연도	표제	수록 내용 및 비고
奎章閣	1993	奎章閣古地圖目錄	지도 246종 영인 및 해제
	1995	海東地圖	지도 영인 및 해제
	1996-2002	朝鮮後期 地方地圖	도별 지도 영인 및 지명색인 총 15책
	2003	東輿圖	해제 및 지명 색인
	2004	朝鮮全圖	도판 해제 및 지명 색인
	2005	朝鮮地圖	해제 및 지명 색인
	2006	鄭尙驥의 [東國地圖]	해제 및 지명 색인
	2007	朝鮮後期 大縮尺 朝鮮分圖	해제 및 지명 색인
	2022	규장각 소장 고지도로 조선시대를 살아보다	소장 주요 고지도 해제 및 지도 영인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s://kyu.snu.ac.kr/publish/publish5-4/>)

이 있으며, 1995년에 『해동지도』를 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고지도 영인간행도서가 발간되었다. 이후 1872년에 제작된 전국 군현 지도 450매를 영인, 간행하였다. 1996년에 『조선후기 지방지도(전라도편)』를 시작으로 2002년까지 경기도편, 충청도편, 경상도편, 강원도, 함경도편, 평안도편, 황해도편까지 도별로 총 15책이 간행되었다.

2003년에는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지도를 뒤에 필사한 것으로 보이는 전국 채색지도인 『동여도』, 2004년 『조선전도』, 2005년 『조선지도』, 2006년 『정상기의 [동국지도]』, 2007년 『조선 후기 대축척 조선분도』의 영인간행도서가 발간되었다. 2022년에는 ‘우리 옛지도를 살아보다’, ‘옛지도를 통해 조선인의 삶과 생각을 알아보다’라는 주제로 한국 고지도에 반영된 조선시대 사람들의 세계관을 담은 『규장각 소장 고지도로 조선시대를 살아보다』라는 제목의 e-도록을 발간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에서는 소장 고지도를 대상으로 고지도의 영인본과 고지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논고가 수록된 고문헌연구총

서를 발간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1977)은 한국의 고지도 목록을 발간하였으며 2008년에 『해동여지도연구』를 발간하였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고지도를 통해 본 서울지명연구』의 발간을 시작으로 『경기지명연구』, 『충청지명연구』, 『전라지명연구』, 『경상지명연구』, 『강원지명연구』 등을 발간하였다. 이 연구총서에는 각 지역의 고지도를 영인하여 수록하였으며, 각 지역의 한자표기 지명에 대한 우리말의 땅 이름과 현재의 위치를 연결한 지명색인과 각 지역의 역사와 읍치의 특징에 관한 논고가 수록되어 있다(〈표 4〉 참조).

장서각은 조선왕실에서 소장하던 귀중한 고문헌들을 수집 및 관리하는 도서관이며 연구소이다. 장서각에는 조선의 궁궐에서 보관하던 12만여 책의 왕실도서와 전국에서 수집한 민간 고문헌 6만여 점이 소장되어 있다. 장서각에서는 소장 도서의 해제집에 지리류 중에서 주로 읍지 부도의 지도 등을 수록하였다. 1994년에는 녹둔도 일대를 그린 『아국여지도』를 소개하였고, 2002년에 『조선왕실의 책』에서 『월중도』, 『자규루도』 등의 왕실능도와 군현지도책인 『지

〈표 4〉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지도 목록 및 영인간행도서

간행 기관	연도	표제	수록 내용 및 비고
國立中央圖書館	1977	韓國의 古地圖展示目錄: 國立中央圖書館所藏	소장 고지도 목록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고전운영실	2008	海東輿地圖研究	고지도 해제 및 색인, 논고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0	고지도를 통해 본 서울지명연구	고지도 해제 및 색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1	고지도를 통해 본 경기지명연구	고지도 해제 및 색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2-2014	고지도를 통해 본 충청지명연구 1-2	고지도 해제 및 색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5-2016	고지도를 통해 본 전라지명연구 1-2	고지도 해제 및 색인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2017-2018	고지도를 통해 본 경상지명연구 1-2	고지도 해제 및 색인
국립중앙도서관	2019	고지도를 통해 본 강원지명연구	고지도 해제 및 색인

출처: 國立中央圖書館(1977), 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연구소고전운영실(2008), 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연구소(2010; 2011; 2012-2014; 2015-2016; 2017-2018), 국립중앙도서관(2019)

〈표 5〉 장서각의 고지도 목록 및 영인간행도서

간행 기관	연도	표제	수록 내용 및 비고
藏書閣	1993	藏書閣圖書韓國本解題輯-地理類	지리류 및 부도 해제
	1994	韓國學資料叢書Ⅱ	『我國輿地圖』 해제
	1995	藏書閣圖書解題 I	지리류 및 부도 해제
	2002	(2002 장서각 특별전)조선왕실의 책	지리류 및 부도 해제
	2005	藏書閣圖書韓國本解題-地理類 2	지리류 및 부도 해제
	2006	藏書閣圖書韓國本解題輯-地圖類 3	지리류 및 부도 해제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https://www.aks.ac.kr/index.do>)

도, 『아국여지도』가 도판으로 일부를 소개하였고 2005년에는 10여종의 지도와 함께 『영남도』를 소개하였다(김기혁, 2006). 2006년에는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고지도만을 대상으로 해제집을 간행하였다(〈표 5〉 참조).

4.2 전시회 및 도록 간행

고지도는 고서 및 고문서로 분류되어 유물적 가치와 유일본이라는 자료적 특성으로 일반인

들이 원본 자료 열람은 제한적이다. 고지도의 제작시기, 유형별, 주제별로 다양한 주제로 개최되는 고지도 전시회를 통해 일반인도 원본의 고지도 자료를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시된 지도명, 간략한 해제들을 통해 쉽게 고지도를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전시회 주관 기관에서 발행하는 고지도 영인본들이 수록된 도록은 당시 기관의 고지도 소장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확인되지 않는 지도들의 소장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경성제국대학부속도서관(1932)은 조선의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의 고지도, 외국에서 만든 조선지도, 서양인의 조선기행을 모아 전시회를 개최하고 『고지도전관목록』을 간행하였다.

서울대학교도서관에서는 1971년에 서울대학교 개교 25주년 기념 “한국 고지도 전시회”를 개최하고 출판목록의 도록을 발간하였으며, 1991년 “고서와 고지도로 보는 북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도록(서울大學校圖書館, 1991)을 간행하였다(〈표 6〉 참조).

박물관의 고지도는 회화자료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이는 고지도가 채색필사본이나 목판본에 채색되어 회화식으로 표현된 군현지도, 궁궐도, 관아도, 명승도, 도성도와 같은 특수지도들의 예술적 가치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고지도가 과학 자료로 분류되기도 한다. 하늘과 땅의 이치인 천문과 지리는 사람이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근본적인 요소였다. 천문도는 하늘의 모습과 이치를 종이 위에 옮겨 놓은 지도이다. 대표적인 천문도는 『천상열차분야지도』로 천문현상을 12분야로 나누어 차례로 늘어놓은 그린 그림에는 하늘의 모든 별들이 별자리 그림으로 형상화되어 있다(양보경, 양윤정, 이명희, 2016). 유물로 분류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지도는 자료 보존에 비중을 두고 있어 일반인

들이 고지도의 원본 열람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박물관 상설 및 특별전시회 등에 공개된 고지도를 열람하거나 전시 도록을 통해 고지도를 접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박물관 협력망 e-뮤지엄 웹 사이트를 통해 전국 박물관 유물을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다.

박물관에서는 소장품 목록 및 도록집을 제작하면서 고지도를 부분적으로 수록하여 소개하였다. 국립박물관에서 소장 유물 도록에 고지도를 수록한 도록집은 〈표 7〉과 같다. 2000년 이후에 박물관 소장 고지도 전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관련하여 도록집을 간행하였다. 국립민속박물관(2004)은 “한반도와 바다” 전시회에 해양관련 지도 21종을 전시하고 도록에 수록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18년 “지도예찬” 전시회에 ‘조선지도 500년, 공간·시간·인간의 이야기’를 주제로 고지도와 칼럼을 수록한 도록을 간행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은 2015년, 2018년에 『지도박물관 옛지도집』에서 우리나라 지도 24종을 수록한 고지도 도록을 간행하였다(이돈수, 심정보, 한상호, 2015; 2018).

서울역사박물관은 소장 고지도 전시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우리나라 고지도뿐만 아니라 서양 고지도를 소개하는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2002년에 『서울-하늘·땅·사람』을 주제로 전시회

〈표 6〉 대학도서관 간행 목록 및 도록집

간행 기관	연도	목록 및 도록집	수록 내용 및 비고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	1932	古地圖展觀目錄	지도 106종 서지내용 수록
서울大學校 圖書館	1971	韓國 古地圖 展示會 出品目錄	서울대학교 開校25周年 記念 도록
서울大學校 圖書館	1991	고서와 고지도로 보는 북한	1991년 奎章閣 자료 전시회 도록

출처: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1932), 서울大學校 圖書館(1971; 1991)

〈표 7〉 박물관 간행 목록 및 도록집

간행 기관	연도	목록 및 도록집	수록 내용 및 비고
국립민속박물관**	2004	한반도와 바다	해양관련 지도 21종
국립중앙박물관*	2002	高麗·朝鮮의 對外交流	지도 11종 및 일본지도
	2005	開館記念 圖錄	지도 수록
	2006	東興	색인수록
	2018	지도예찬	조선지도 500년, 공간·시간·인간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고지도 및 칼럼수록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2015	(古지도 도록) 지도박물관 옛 지도집	우리나라 지도 22종
	2018	(古지도 도록) 지도박물관 옛 지도집	우리나라 지도 2종
서울역사박물관*	2002	서울-하늘·땅·사람	역사기록도 등 122종 수록
	2004	Corea코리아	서양고지도 85도판 수록
	2004	都城大地圖	소장품자료집 간행 및 실물 크기 영인본 제작
	2006	李燦 寄贈 우리 옛地圖	고지도 115종 수록
	2020	都城	소장유물자료집 도성대지도 전체도, 부분도, 상세도 수록

* 출처: 국립중앙박물관(<https://www.museum.go.kr/site/main/home>)
 서울역사박물관(https://museum.seoul.go.kr/www/NR_index.do?sso=ok)
 ** 출처: 국립민속박물관(2004), 이돈수, 심정보, 한상호(2015; 2018)

를 개최하고 역사기록도 등 관련 지도들을 수록하였다. 2004년에는 서양고지도 『Corea 코리아』 전시회를 개최하고 도록을 간행하였으며, 같은 해에 소장품자료집 『도성대지도』를 발간하고 실물크기의 『도성대지도』를 영인하여 제작 및 보급하였다. 2020년에는 도록집 『도성』에 『도성대지도』의 전체도, 구역별 부분도, 영역별 상세도의 도판과 분야별 색인 및 논고를 수록하였다. 2006년에는 이찬(고 서울대 명예교수) 기증 고지도 115종을 수록한 『우리 옛지도』 도록집을 간행하였다.

대학박물관에서 소장품 간행 목록 및 도록집에는 일부 고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1989년 고려대학교 박물관의 『고회화명품도록』에 『동굴도』 1점, 동아대학교 박물관의 소장품 도록에는 『진주도』, 『거제도도』, 『부산고지도』, 『조선총지도』 등 4점, 서울대학교 박물관의 소장

품 도록인 『수장고를 열다』에는 『곤여만국전도』 1점이 수록되어 있다.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은 2016년에 박물관 소장 고지도를 중심으로 『고지도와 천문도』에 우리나라 고지도에 대한 소개와 특수지도인 천문도에 관한 논고를 수록하였다.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서도 “지리-천문도” 특별자료전시회를 개최하고 도록 『지리-천문도』를 간행하여 보급하였다. 이 외에 2004년에 『이전개관기념 도록』에 고지도 40점을 수록하고, 2013년에는 『옛지도 속의 하늘과 땅』에 『천하총도』 등 고지도 23점을 수록하였다.

소장 고지도를 도록으로 편찬하여 보급한 대학 박물관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과 영남대학교 박물관이 있다.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2004)은 소장 고지도를 수록한 『땅의 흔적, 지도이야기』를 편찬하여 CD와 함께 보급하였다. 『경성

용산시가지지도』 등 경성의 고지도를 수록한 『지도로 본 서울의 시간과 공간』(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2011)과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소장 고지도 10점과 근현대지도 등 총 61점의 도판을 수록한 도록 『지도』(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2013)를 발행하였다. 영남대학교박물관(1998)은 573점의 다량의 고지도를 소장하고 있으며 이를 편찬하여 『한국의 옛지도』 도판편과 자료편을 발행하였다(〈표 8〉 참조).

4.3 고지도 연구서 출판

우리나라 고지도의 제작과 발달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전문 연구자의 작업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도들을 모아 정리하는 연구서 및 지도집의 발간 작업이 요구된다. 한국 고지도에 관한 연구로 출판된 지도목록 및

도록집은 〈표 9〉와 같다.

한국도서관학회에서 출판한 이찬(1997)의 『한국고지도』는 원색 도판 17종, 흑백 도판 99종 등 총 116점의 지도와 지도발달사 논고를 수록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지도 종합서이다(양보경, 1997). 건설부국립지리원(1979)이 출판한 『한국고지도목록』은 총 338점의 고지도의 제작자, 제작 연대, 축척, 판종, 구성, 규격, 수량, 내용 등의 항목을 정리하여 공공기관 소장처의 지도목록을 소개하였다. 1991년에는 범우출판사는 이찬(1991)의 『한국의 고지도』를 출판하였다. 이 도록집에는 총 243종의 채색도판과 논고, 도판 해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에 일문판과 영문판으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한국고지도발달사』에는 전국 5개 기관에 소장 되어있는 고지도 347점의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이상태, 1999).

〈표 8〉 대학박물관 간행 목록 및 도록집

간행 기관	연도	목록 및 도록집	수록 내용 및 비고
고려대학교박물관*	1989	古繪幀名品圖錄	동궐도 1점
東亞大學校博物館*	2001	所藏品圖錄	『진주도』, 『거제도도』, 『부산고지도』, 『조선총지도』 등 4점
서울대학교박물관*	2019	수장고를 열다	고지도 1점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2004	땅의 흔적, 지도이야기	근대지도특별전박물관 소장 고지도 수록
	2011	지도로 본 서울의 시간과 공간	경성용산시가지도 등 경성의 고지도 수록
	2013	지도 (20세기 동아시아 역사를 말하다)	박물관 소장 고지도 10점 수록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16	고지도와 천문도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고지도 수록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1992	地理-天文圖	지리-천문도 특별자료전도록
	2004	移轉開館記念 圖錄	고지도 40점
	2013	옛지도 속의 하늘과 땅	『천하총도』 등 고지도 23점
영남대학교박물관**	1998	韓國의 옛地圖	박물관 소장 고지도 수록

* 출처: 고려대학교박물관(<http://museum.korea.ac.kr/>),

동아대학교박물관(<https://museum.donga.ac.kr/sites/museum/index.do>)

서울대학교박물관(<https://museum.snu.ac.kr/>), 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https://museum.ssu.ac.kr/>)

** 출처: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2004; 2011; 2013),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2016), 영남대학교박물관(1998)

〈표 9〉 한국 고지도 목록 및 도록집

표제	발행년도	저작자	출판사
韓國古地圖	1977	이찬 편	韓國圖書館學硏究會
韓國古地圖目錄	1979	건설부, 국립지리원	建設部國立地理院
韓國의 古地圖	1991	이찬 저	汎友社
韓國古地圖發達史	1999	이상태 저	혜안
(옛 삶터의 모습) 고지도	2005	오상학 지음 :국립중앙박물관 편	통천문화사
조선 왕실의 행사그림과 옛지도	2005	박정혜, 이예성, 양보경 저: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민속원
(지리산권) 고지도 선집	2009	최원석, 구진성 편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편	브레인
한국 고지도의 역사	2011	개리 레드야드 지음: 장상훈 옮김	소나무
(지지와 고지도로 본) 북한의 봉수	2011	김주홍 지음	서경문화사
한국 지도학 발달사	2015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진한엠앤비
동여비고(東輿備攷)의 학술적 재조명	2021	고문헌과콘텐츠연구소 편저	집문당

출처: 이찬 편(1977), 建設部國立地理院(1979), 이찬(1991), 이상태(1999), 오상학(2005), 박정혜, 이예성, 양보경(2005), 최원석, 구진성 편(2009), Ledyard(1932), 김주홍(2011),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2015), 고문헌과콘텐츠연구소 편저(2021)

2005년에 출판된 명품선집 『옛 삶터의 모습 고지도』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의 해설과 논고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풀이한 소도록 형태의 명품집으로 제작된 도록집이다(오상학, 2005).

2005년에 출판된 『조선 왕실의 행사그림과 옛지도』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의 회화자료 중에서 기록화와 지도를 중심으로 조선 왕실의 행사그림과 옛 지도에 대한 연구논문과 해제, 도판이 수록되어 있다(박정혜, 이예성, 양보경, 2005).

2009년에는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에서 편찬한 『(지리산권) 고지도 선집』을 출하였으며(최원석, 구진성, 2009), 『팔도지도』, 『팔도분도』, 『조선지도첩』, 『동역도』, 『조선팔도지도』, 『여지도』, 『해동지도』, 『동국여지도』, 『청구팔역도』 등 경상도, 전라도, 영남 호남의 지리산

권의 고지도 도판을 수록하였다. 2011년에 소나무에서 출판된 『한국 고지도의 역사』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명예교수 개리 레드야드가 저술한 책(Ledyard, 1932)으로 전국지도, 고을지도, 지역지도, 국방지도 등의 한국지도, 한국에서 제작한 세계지도와 동아시아지도 등의 지도도판 및 한국 지도학 발달에 대한 논고가 수록되어 있다.

2011년에 서경문화사에서 출판한 『(지지와 고지도로 본) 북한의 봉수』는 조선시대 북한의 봉수와 조선후기지방지도의 봉수표기에 대한 논고가 수록되어 있으며(김주홍, 2011), 『해동지도』와 『여지도서』 등 지지와 고지도에 봉수의 표기 형태를 비교하였다.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2015)이 저술한 『한국 지도학 발달사』에는 지도의 역사와 특색, 고지도 발달사, 근현대 지도 발달사 등을 지도도

판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동여비고(東輿備攷)의 학술적 재조명』은 우리나라 전국 도별도 및 군현도 등 32여종의 지도를 수록한 지도책 『동여비고』의 제작 경위 및 지도사적 의의, 사찰의 표기 및 산 인식체계에 대한 접근 등에 관한 논고와 도판 해설을 수록하였다(고문헌과콘텐츠연구소 편저, 2021).

우리나라 고지도의 도판과 연구 논고 및 해설을 수록한 출판물은 고지도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고지도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서울의 고지도 도록의 발간을 시작으로 전국 각 지역별로 고지도 도록 편찬이

활발해졌다. 1990년대 이후에는 문화와 장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지역을 그린 고지도가 도록으로 간행되었다(김기혁, 2006). 서울, 전남, 제주 등 특정 지역의 고지도를 모아 편찬한 간행물의 목록은 <표 10>과 같다.

서울의 고지도를 수록한 도록은 『서울의 고지도』(허영환, 1989), 『(정도 600년) 서울지도』(허영환, 1994), 『서울의 옛지도』(이찬, 양보경, 1995) 등이 있다.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향토문화진흥원에서 『전남의 옛지도』(김정호, 1994)를 발간하였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1996)은 『제주의 옛지도』를 발간하였다. 당진문화원은 『당진의 옛지도』(김추운, 양보경, 1997), 경

<표 10> 지역대상 고지도 편찬 도록

표제	연도	간행 기관	저작자
서울의 古地圖	1989	三省出版社	허영환 저
(定都 600年) 서울地圖	1994	汎友社	허영환 저
全南의 옛地圖	1994	郷土文化振興院	김정호 저
서울의 옛地圖	1995	서울학研究所	이찬, 양보경 공저
濟州의 옛 地圖	1996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편
唐津의 옛地圖	1997	당진문화원	김추운, 양보경 공저
水原의 옛地圖	2000	水源市	경기도 수원시 편
江華 옛地圖	2003	江華郡	인천광역시 강화군 편
京畿道の 옛地圖	2005	경기도 문화정책과	오상학 저
釜山古地圖	2008	부산광역시	김기혁 저
淸州의 古地圖	2010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조항범, 박걸순, 박용만, 최병철
居昌 古地圖: 거창 옛 지도	2015	거창박물관	거창박물관 편
조문국의 부활: 의성지역 고지도 전시: 2019년 특별전시	2019	의성조문국박물관	의성조문국박물관 편
제주 고지도: 제주에서 세계를 보다: 제주대학교 개교 67주년 기념 특별전	2020	국립제주대학교박물관	국립제주대학교박물관 편
지도 속의 예천: 예천의 고지도: 예천박물관 특별기획전	2021	예천박물관	예천박물관 편
서산의 고지도와 지리지	2022	서산문화원	김효경 저

출처: 허영환(1989; 1994), 김정호(1994), 이찬, 양보경 공저(1995),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편(1996), 김추운, 양보경(1997), 경기도수원시(2000), 인천광역시 강화군(2003), 오상학(2005b), 김기혁(2008), 조항범 외(2010), 거창박물관 편(2015), 의성조문국박물관 편(2019), 국립제주대학교박물관 편(2020), 예천박물관 편(2021), 김효경(2022)

기도 수원시(2000)는 『수원의 옛지도』, 인천광역시 강화군(2003)은 『강화의 옛지도』를 발간하였고 2005년에는 경기문화원은 『경기도의 옛지도』(오상학, 2005b)를 출간하였다. 부산광역시에서 『부산고지도』(김기혁, 2008)도록을 발간하였다.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에서 『청주의 고지도』(조항범 외, 2010)를 발간하였다. 각 기관에서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발간한 지역과 관련된 고지도 도록집이 있다. 거창박물관(2015)은 『거창 고지도: 거창 옛 지도』, 의성조문국박물관(2019)은 『조문국의 부활』의 성지역 고지도 전시 도록을 간행하였다. 최근에 간행된 지역 대상 도록으로는 국립제주대학교박물관(2020)에서 간행한 『제주 고지도』와 예천박물관(2021)에서 간행한 『지도 속의 예천』 도록이 있다. 서산문화원은 『서산의 고지도와 지리지』(김효경, 2022)를 간행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을 단위로 하는 도록의 간행 사업은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와 전국 박물관 및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해당 지역의 고지도를 망라하여 영인본 제작, 전시를 기획하고 고지도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돕기 위한 논고를 수록한 도록을 출판하는 등 고지도에 대한 학문적·문화적 관심을 보여주었다.

5. 고지도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

5.1 고지도 통합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고지도 정보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학술정보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고지도 정보의 접근성 향상의 필요성은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에서 찾을 수 있다. 고지도를 비롯한 고문헌의 소장정보 및 서지정보 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보검색시스템들이 있다. '3. 고지도의 정보검색 및 소장현황'에서 확인한 바 있듯이 김기혁(2006)의 연구에서 고지도 소장처 조사 대상 기관이 39개 기관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6개 기관으로 37개 기관의 소장정보 현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조사 대상 기관을 확대 할 수 있었던 것은 통합 목록인 한국고문헌종합목록, 문화유산정보 통합검색을 제공하는 e뮤지엄 등 통합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으로 전국의 도서관 및 박물관의 고지도 소장 현황 파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고지도에 관련한 학술정보들을 통합 정보서비스 플랫폼에 탑재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고지도를 소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장서각 등의 국·공립 도서관과 박물관은 전국의 문헌과 문화유산의 통합검색을 제공하고 있으나 각각의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메뉴들이 상이하여 고지도 자료 검색 및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메뉴들을 탐색해야 했다. 한편 한국고문헌종합목록, e뮤지엄 등 통합목록시스템이 제공하는 고지도의 정보는 소장처, 지도목록 등의 자료정보는 중복되거나 서비스 협약기관이 추가되고 있어 검색 시점의 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지도의 자세한 이미지, 해제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각 소장기관의 웹 사이트를 다시 검색해야 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생산 보유 관리하는 고지도의 서지정보, 해제, 학술 논고 등의 지식정보를 연계하여 고지도 지식정보플랫폼을 구축하여 고지도

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활용 목적에 맞는 정보들을 탐색하고 접근하기 쉽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5.2 고지도를 활용한 지역아카이브 구축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자료로 고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고지도는 지리정보뿐만 아니라 당대의 정치·사회적 인식 등을 담고 있어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으로 특화된 이용자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4. 고지도의 간행과 보급'에서 확인 한 바 지역의 문화와 장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와 전국 박물관 및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해당 지역의 고지도를 망라하여 영인본 제작, 전시를 기획하고 학술논고를 수록한 도록을 출판하는 등 고지도에 대한 학문적·문화적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편 경기도사이버도서관(2018)의 “경기도메모리”는 경기도의 기억과 기록을 모아 서비스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메모리의 ‘지역’ 항목의 지도메뉴에는 사진, 그림, 도서 및 간행물류, 단행본, 유물 및 유적, 명승고적에 대한 자료, 지명총람, 경기도 지역의 테마 여행안내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다양한 유형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역아카이브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아카이브 플랫폼은 지역에 소멸하고 변형되는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 및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지도에 나타난 지명 변화, 지역 경계의 변화 등을 탐색하여 고지도 영인본 제작, 관련 논고 등을 아카이브 자료로 수집 및 활용한다

면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화된 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5.3 전문 인력 양성과 확보

고지도에 대한 정보는 종합목록시스템이나 소장기관에서 발행한 도록, 간행물, 연구서 등 다양한 정보자원을 통해 검색하고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지도의 정보들을 분석하여 목적에 맞게 선별하고, 고지도에 표현된 이미지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도서관 및 박물관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서 고지도와 연관된 다양한 주제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고지도에 대한 소양과 전문 지식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도서관의 사서와 박물관의 학예사는 이용자에게 고지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이 고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면 주제 자료 및 장서구축,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이용자 서비스 개발,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정보 서비스 제공, 아카이브 구축 등 특화서비스 개발, 고지도 전시 및 행사 프로그램 연계 등 도서관 및 박물관의 이용자 서비스 개발에 고지도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인력은 고지도 자료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고지도는 지도학, 지리학, 정보학, 회화 등 다양한 학문적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고지도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다양한 전공과 인문적 사고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 및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6. 결론 및 제언

고지도는 지리적 실체를 표현하고 역사적 시간과 공간, 자연, 인문 현상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고지도에 표현된 문자 및 부호, 지역의 경계 등을 통해 국가의 행정, 군사력, 당대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우리는 고지도를 통해 과거를 반추하고, 현재를 정의하고,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지역 문화 발전과 더불어 고지도에 관심의 증대로 고지도 정보화 사업으로 국립도서관과 박물관 중심으로 고전적 및 유물들에 대한 목록과 원문 이미지 구축 및 해제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일반인들도 고지도 자료 및 정보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내에 고지도의 소장정보 및 서지정보 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종합목록시스템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장서각 등은 웹 사이트를 통해 소장 고지도의 목록 검색, 원문, 해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지도를 시대별, 주제별로 나누어 가공된 형태의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e뮤지엄은 박물관 협력망 온라인 사이트로 전국의 고지도를 비롯한 박물관 소장품을 검색할 수 있다. 국토정보플랫폼은 지도자료뿐만 아니라 지리지 및 지명유래집, 근대측량자료 등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웹 사이트를 통해 각 기관의 고지도 소장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국·공립 및 대학 도서관과 박물관 등 총 76개 기관에 총 2,243점의 고지도 소장현황을 파악하였다. 국내 국공립 및 대학도서관 등 20개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지도는 총 973점이며 국공립 및 대

학박물관의 총 42개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지도는 총 1,270점이다. 박물관의 소장품 관리 시스템인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과 연계한 박물관 협력망을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e뮤지엄의 웹 사이트를 통해 전국의 고지도 소장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지도는 유일본, 귀중본으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유물로 분류 및 관리되고 있어 일반인들의 원본 자료 열람은 제한적이다. 고지도 원본을 보존하면서 연구 및 정보제공에 활용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고지도의 영인, 복제본을 간행하는 것이다. 고지도에 대한 정보 전달과 이용 확대를 위하여 고지도 소장 각 기관에서는 영인본 간행, 전시회 및 도록, 목록 및 총서 등의 연구서의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다. 다량의 고지도를 소장하고 있는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은 고지도의 영인, 간행, 해제 및 논고를 포함한 연구총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대학 도서관 및 박물관에서는 소장 자료 단독으로 혹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전시회를 개최하고 고지도 전시 목록과 서지사항을 수록한 목록집 및 도록집을 간행하여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지도의 제작과 발달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전문 연구자의 작업을 통하여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지도들을 모아 정리하는 연구서 및 지도집의 발간이 1970년대 이후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종합적인 지도집 뿐만 아니라 지리·역사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고지도의 도판과 해설을 수록하거나 개별 고지도에 대한 논고를 수록하여 간행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지역에 대한 관심,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지역 내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와 전국 박물관 및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해당 지역의 고지도를 망라하여 도록의 간행하였으며 이는 고지도에 대한 학문적·문화적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지도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웹 사이트를 통해 목록 및 해제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소장기관은 연구서 발행, 도록 발간 등 고지도와 관련된 간행물을 제작 보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지도의 희귀성, 유일본 등의 자료적 특성으로 원문 자료의 열람 및 이용이 제한적이다. 이러한 자료적 특성을 가진 고지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고지도 정보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학술정보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생산 보유 관리하는 고지도의 서지정보, 해제, 학술 논고 등의 지식정보를 연계하여 고지도 지식정보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자료로 고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고지도에 나타난 지명 변화, 지역 경계의 변화 등을 탐색하여 고지도 영인본 제작, 관련 논고 등을 아카이브 자료로 수집 및 활용한다면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화된 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고지도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다양한 전공을 바탕으로 지도를 연구하여 다양한 인문적 사고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 및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지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고지도를 이용한 서비스 및 정보제공 등 고지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 도서관 및 박물관의 고지도 소장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향후 국내 기관의 소장되어 있는 고지도뿐만 아니라 해외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지도 자료에 대한 파악과 조사·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거창박물관 편 (2015). 居昌古地圖: 거창옛지도, 거창군: 거창박물관.
- 建設部國立地理院 (1979). 韓國古地圖目錄.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18). 경기도메모리. 출처: <https://memory.library.kr/main>
- 경기도 수원시 (2000). 水原의옛地圖. 수원: 수원시.
-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 (1932). 古地圖展觀目. 京城: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
- 경희대학교해정박물관 (2004). 경희대학교 해정박물관. 출처: <https://oldmaps.khu.ac.kr/>
- 고려대학교박물관 (2018). 고려대학교박물관. 출처: <http://museum.korea.ac.kr/>
- 고문헌과콘텐츠연구소 편저 (2021). 동여비고(東輿備攷)의 학술적 재조명. 서울: 집문당.

국립국어원 [발행년불명].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

출처: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국립민속박물관 편 (2004). 한반도와 바다.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제주대학교박물관 편 (2020). 제주고지도: 제주에서 세계를 보다: 제주대학교 개교67주년 기념 특별전. 제주: 국립제주대학교박물관.

國立中央圖書館 (1977). 韓國의 古地圖展示目錄: 國立中央圖書館所藏.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9). 고지도를 통해 본 강원 지명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고문헌과

국립중앙도서관 (2022). 한국고문헌종합목록. 출처: <https://www.nl.go.kr/korcis/index.do>

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연구소 (2010). 고지도를 통해 본 서울지명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연구소.

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연구소 (2011). 고지도를 통해 본 경기지명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연구소 (2012-2014). 고지도를 통해 본 충청지명연구1,2.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연구소 (2015-2016). 고지도를 통해 본 전라지명연구1,2.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연구소 (2017-2018). 고지도를 통해 본 경상지명연구1,2.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연구소 고전운영실 (2008). 海東輿地圖研究.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고전운영실.

국립중앙박물관 (2006). e뮤지엄. 출처: <https://www.emuseum.go.kr/main>

국립중앙박물관 [발행년불명]. 국립중앙박물관.

출처: <https://www.museum.go.kr/site/main/home>

국사편찬위원회 (2024).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출처: <https://db.history.go.kr/>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2015). 한국 지도학 발달사. 서울: 진한엠엔비.

국토지리정보원 (2019). 국토정보플랫폼. 출처: <https://map.ngii.go.kr/mn/mainPage.do>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a).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출처: <https://kyudb.snu.ac.kr/>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b).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출처: <https://kyu.snu.ac.kr/publish/publish5-4/>

김기혁 (2006). 우리나라 도서관 박물관 소장 고지도의 유형 및 관리 실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1(6), 714-739.

김기혁 (2007a). 우리나라 고지도의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3), 301-320.

김기혁 (2007b). 지역문화 연구 자료로서 고지도 및 지리지. 정신문화연구, 30(3), 119-142.

- 김기혁 (2008). 釜山古地圖. 부산: 부산광역시.
- 김기혁 (2018). 한국 고지도 연구의 최근 동향과 과제. 한국고지도연구, 10(2), 5-33.
http://dx.doi.org/10.22787/oldmap.2018.10.2.001
- 김정호 편 (1994). 全南의 옛地圖. 全羅南道: 鄕土文化振興院.
- 김주홍 (2011). 북한의 봉수. 서울: 서경문화사.
- 김주환 (2009). 한국지도학발달사. 수원: 국토지리정보원.
- 김추윤, 양보경 공저 (1997). 唐津의 옛地圖. 당진군: 당진문화원.
- 김효경 (2022). 서산의 고지도와 지리지. 서산: 서산문화원.
-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2016).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출처: <https://museum.donga.ac.kr/sites/museum/index.do>
- 두산 (2024). 두산백과. 출처: <http://www.doopedia.co.kr>
- 류동현 (2010). 웹사이트에서 고지도 서비스의 구성내용과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리스트피아 (2022).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출처: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1g4179a
- 마문길 (1993). 지리학대사전. 서울: 박영문화사.
- 박정혜, 이예성, 양보경 공저 (2005). 조선왕실의 행사그림과 옛지도. 서울: 민속원.
- 서울대학교도서관 (1971). 韓國古地圖展示會出品目錄. 서울: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
- 서울大學校圖書館 (1991). 고서와 고지도로 보는 북한. 서울: 서울大學校圖書館.
- 서울대학교박물관 (2024). 서울대학교박물관. 출처: <https://museum.snu.ac.kr/>
-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2004). 땅의 흔적, 지도 이야기. 서울: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2011). (지도로 본)서울의 시간과 공간. 서울: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2013). 지도. 서울: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 서울역사박물관 (2021).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https://museum.seoul.go.kr/www/NR_index.do?sso=ok
- 성균관대학교 (2018). 존경각. 출처: <https://east.skku.edu/#/>
- 성균관대학교 [발행년불명].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출처: <https://swb.skku.edu/museum/index.do>
- 숭실대학교 (2019). 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출처: <https://museum.ssu.ac.kr/>
- 양보경 (1997). 고지도와 역사연구. 역사와 현실 26, 263-281.
- 양보경, 양윤정, 이명희 (2016). 고지도와 천문도.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연세대학교도서관 (2022). 연세대학교도서관. 출처: <https://library.yonsei.ac.kr/>
- 영남대학교박물관 (1998). 韓國의 옛地圖. 慶山: 영남대학교박물관.
- 예천박물관 편 (2021). 지도속의 예천: 예천의고지도: 예천박물관특별기획전. 예천군: 예천박물관.

- 오상학 (2003). 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규장각 26. 서울: 규장각.
- 오상학 (2005a). (옛살터의 모습) 고지도. 서울: 통천문화사.
- 오상학 (2005b). 京畿道의옛地圖. 수원: 경기도문화정책과.
- 육군사관학교 (1998). 육군박물관도록. 서울: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 의성조문국박물관 편저 (2019). 조문국의 부활: 의성지역 고지도 전시: 2019년 특별전시. 의성군: 의성조문국박물관.
- 이돈수, 심정보, 한상호 (2015). (古지도도록)지도박물관 옛지도집. 수원: 국토지리정보원
- 이돈수, 심정보, 한상호 (2018). (古지도도록)지도박물관 옛지도집: 제2권. 수원: 국토지리정보원
- 이상태 (1999). 한국 고지도 발달사. 서울: 혜안.
- 이찬 (1991). 한국의 고지도. 서울: 범우사.
- 이찬, 양보경 공저 (1995). 서울의 옛地圖. 서울: 서울시립대학교부설서울학연구소.
- 이혜은 (2013). 고지도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 이혜은 (2016). 고지도 목록의 接近點 확대 방안. 한국고지도연구, 8(1), 113-131.
- 인천광역시 강화군 편 (2003). 江華 옛地圖. 인천광역시: 江華郡.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편 (1996). 濟州의 옛地圖. 제주: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 조항범, 박결순, 박용만, 최병철 (2010). 淸州의 古地圖. 청주시: 충북대학교중원문화연구소.
- 최원석, 구진성 편 (2009). (지리산권)고지도 선집. 창원: 브레인.
- 한국지리정보연구회 (2004). 자연지리학사전. 파주: 한울.
- 한국학중앙연구원 (2022a). 디지털장서각. 출처: <https://jsg.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2022b).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처: <https://www.aks.ac.kr/index.do>
- 한국학중앙연구원 (2022c).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출처: <http://www.grandculture.net/korea>
- 허영환 (1989). 서울의 古地圖. 서울: 三省出版社.
- 허영환 (1994). 定都600年 서울地圖. 서울: 汎友社.
- Ledyard, Gari (1932). Cartography in the Traditional East and Southeast Asian Societies- Cartography in Kprea. 장상훈 역 (2011). 한국고지도의 역사. 서울: 소나무.
- Harley, J. B. & Woodward D. (1987). The History of Cartography 1,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o, Hang-beom, Park, Gul-soon, Park, Yong-man, & Choi, Byeong-cheol (2010). Old map

- of Cheongju. Cheongju-si: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Jungwon Culture Research Institute.
- Choi, Wonseok & Koo, Jinseong (2009). (Jirisan area) Old Map Selection. Changwon: Brain. Classics Operations Department, Library Research Institute, National Library of Korea (2008). Haedongyeojido study. Seoul: Classics Operations Room, Library Research Institute, National Library of Korea.
- Co-authored by Kim, Chu-yoon & Yang, Yeo-gyeong (1997). An Old Map of Dangjin Dangjin-gun: Dangjin Cultural Center.
- Doosan Corporation (2024). Doopedia. Available: <http://www.doopedia.co.kr>
- Ganghwa-gun, Incheon Metropolitan City (2003). Ganghwa Old Map Incheon Metropolitan City: Ganghwa-gun.
- Geochang Museum ed. (2015). Geochang Old Map. Geochang-gun: Geochang Museum.
- Gyeonggi-do (2000). An Old Map of Suwon. Suwon: Suwon City.
- Gyeonggi-do Cyber Library (2018). Gyeonggi-do Memory. Available: <https://memory.library.kr/main>
- Gyeongseong Prefecture University School (1932). View of Ancient Land. Gyeongseong: Gyeongseong University College of Education.
- Heo, Young-hwan (1989). An Old Map of Seoul. Seoul: Samsung Publishing.
- Heo, Young-hwan (1994). 600 Year's Maps of Seoul. Seoul: Beomwusa.
- Jeju Folklore and Natural History Museum ed. (1996). An Old Map of Jeju. Jeju: Jeju Island Folklore and Natural History Museum.
- J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ed. (2020). The Old Maps of Jeju: special exhibition of J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Jeju: J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 Kim, Hyo-Kyung (2022). Old Maps and Geography of Seosan. Seosan: Seosan Cultural Center.
- Kim, Jeong-ho, ed. (1994). Old Map of Jeonnam. Jeollanam-do: Local Culture Promotion Agency.
- Kim, Joo-hong (2011). (As Seen from Jiji and Old Maps) Beacon Number of North Korea. Seoul: Seogyeongmoomhwasa.
- Kim, Joo-hwan (2009). History of Development of Korean Geography. Suwon: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 Kim, Ki-Hyuk (2006). A study on the types and management of old maps collected by library and museum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1(6), 714-739.
- Kim, Ki-Hyuk (2007a). Progress and prospect of research on old map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3(3), 301-320.

- Kim, Ki-Hyuk (2007b). Old maps and historical geographical texts as materials of regional culture in Korea: Focused on county old maps in Joseon dynasty. *Korean Studies Quarterly*, 30(3), 119-142.
- Kim, Ki-Hyuk (2008). *Old Maps of Busan*. Busan: Busan Metropolitan City.
- Kim, Ki-Hyuk (2018). Progress and prospect of research on old maps in Korea in recent years. *Journal of the Korean Research Association of Old Maps*, 10(2), 5-34.
<http://dx-doi-org.libproxy.smu.ac.kr/10.22787/oldmap.2018.10.2.001>
- Korea Military Academy (1998). *Collection of Korea Army Museum*. Seoul: Korea Military Academy Korea Army Museum.
- Korea University Museum (2018). *Korea University Museum*. Available:
<http://museum.korea.ac.kr/>
- Korean Geographic Information Research Society (2004). *Dictionary of Natural Geography*. Paju: Hanul.
-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2006a). Search service for original material. Available:
<https://kyudb.snu.ac.kr/>
-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2006b).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vailable: <https://kyu.snu.ac.kr/publish/publish5-4/>
- Kyung Hee University Hye-Jung Museum (2004). *Kyung Hee University Hye-Jung Museum*. Available: <https://oldmaps.khu.ac.kr/>
- Ledyard, Gari & Jang, Sang-Hoon, ed. (2011). *History of Korean Old Maps*. Seoul: Sonamu.
- Lee, Chan & Yang, Bo-Kyung (1995). *The Old Map of Seoul*. Seoul: the Seoul Institute of Seoul Studies, attached to the University of Seoul.
- Lee, Chan (1991). *Old Map of Korea*. Seoul: Beomwusa.
- Lee, Don-su, Shim, Jeong-bo, & Han, Sang-ho (2015). (Old Map Catalog) *Map Museum's Old Map Collection*. Suwon: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 Lee, Don-su, Shim, Jeong-bo, & Han, Sang-ho (2018). (Old Map Catalog) *Map Museum Old Map Collection: Volume 2*. Suwon: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 Lee, Hye-eun (2013). *Design of Metadata Elements for Old Korean Maps*.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Lee, Hye-eun (2016). A study on expanding access points of Korean old map cataloging. *Journal of the Korean Research Association of Old Maps*, 8(1), 113-131.
- Lee, Sang-tae (1999).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Old Maps in Korea*. Seoul: Hyeon.
-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Utopia (2022). *Literature Informatics Terminology Dictionary*.

- Available: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1g4179a
- Ma, Mun-Gil (1993). Geographical Dictionary. Seoul: Park Young Cultural History.
-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National Geographical Institute (1979). Korea's Old Maps Catalog.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15).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Cartography. Seoul: Jinhan M&B.
- National Folk Museum Edition (2004). Korean Peninsula and Sea. Seoul: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19). Land Information Platform. Available: <https://map.ngii.go.kr/mn/mainPage.do>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024). Korean History Database. Available: <https://db.history.go.kr/>
-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n.d.].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Standard Korean Dictionary. Available: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9). A Study on Gangwon Geographical Names Seen through Old Maps. Seoul: Department of Old Documents, National Library of Korea.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2). Korean Old and Rare Collection Information System. Available: <https://www.nl.go.kr/korcis/index.do>
- National Library of Korea Library Research Institute (2010). A Study of Seoul Place Names Seen through Old Maps.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Library Research Institute.
- National Library of Korea Library Research Institute (2011). A Study on Gyeonggi Place Names Seen through Old Maps.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Library Research Institute.
- National Library of Korea Library Research Institute (2012-2014). Research on Chungcheong Place Names Seen through Old Maps 1, 2. Seoul: Library Research Institute, National Library of Korea.
- National Library of Korea Library Research Institute (2015-2016). Research on Jeolla Place Names Seen through Old Maps 1,2. Seoul: Library Research Institute, National Library of Korea.
- National Library of Korea Library Research Institute (2017-2018). Research on Gyeongsang Place Names Seen through Old Maps 1,2. Seoul: Library Research Institute, National Library of Korea.
- National Museum of Korea (1977). Korea's Ancient Geography Exhibition: National Exhibition Center.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National Museum of Korea (2006). National Museum of Korea Emuseum. Available:
<https://www.emuseum.go.kr/main>
- National Museum of Korea [n.d.]. National Museum of Korea. Available:
<https://www.museum.go.kr/site/main/home>
- Oh, Sang-hak (2003). The current status and utilization of old map materials in the collection of Kyujanggak. *Kyujanggak* 26. Seoul: TKyujanggak.
- Oh, Sang-hak (2005a). (Former Life Site) Old Map. Seoul: Tongcheonmoonhwasa.
- Oh, Sang-hak (2005b). Old Map of Gyeonggi-do. Suwon: Gyeonggi-do Cultural Policy Department.
- Park, Jung-hye, Lee, Ye-sung, & Yang, Yang-kyung (2005). (The) Documentary Paintings and Maps of Joseon Dynasty from the Jangseogak Library. Seoul: Minsokwon.
- Ryu, Dong-hyon (2010). A Study on Quality Evaluation on the Old Map Web sites. Master's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 Seokdang Museum of Dong-A University (2016). Seokdang Museum of Dong-A University. Available: <https://museum.donga.ac.kr/sites/museum/index.do>
- Seoul Museum of History (2021). Seoul Museum of History. Available:
https://museum.seoul.go.kr/www/NR_index.do?sso=ok
-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971). Korea's Ancient World Exhibition Meeting.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Education.
-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2024).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Available:
<https://museum.snu.ac.kr/>
-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Painting (1991). North Korea in Old Books and Old Map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Painting.
- Soongsil University (2019). Korean Christian Museum at Soongsil University. Available:
<https://museum.ssu.ac.kr/>
- Sungkyunkwan University (2018). Jongyeonggak Library. Available:
<https://east.skku.edu/#/>
- Sungkyunkwan University [n.d.]. Museum, Sungkyunkwan University. Available:
<https://swb.skku.edu/museum/index.do>Suwon-si,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22a). Digital Jangseogak. Available: <https://jsg.aks.ac.kr/>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22b).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vailable:
<https://www.aks.ac.kr/index.do>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22c). The Digital Local Culture Encyclopedia of Korea. Available: <http://www.grandculture.net/korea>

- The Old Documents and Contents Research Institute, ed. (2021). Academic Reexamination of Dongyeo Bigo. Seoul: Jipmundang.
- Uiseong Jomunguk Museum ed. (2019). Revival of Jomunguk: Exhibition of Old Maps of Uiseong Area: Special Exhibition in 2019. Uiseong-gun: Uiseong Jomunguk Museum.
- University of Seoul Museum (2004). Traces of the Land, Map Stories. Seoul: University of Seoul Museum.
- University of Seoul Museum (2011). (On a Map) Time and Space in Seoul. Seoul: University of Seoul Museum.
- University of Seoul Museum (2013). Map. Seoul: University of Seoul Museum.
- Yang, Bo-Kyung (1997). The study of ancient maps and history. YŎKSA WA HYŎNSIL: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 26, 263-281.
- Yang, Bo-Kyung, Yang, Yoonjung, & Lee, Myunghee (2016). Ancient Maps and Astronomical Charts. Seoul: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ess.
- Yecheon Museum (2021). Yecheon on a Map: Old Maps of Yecheon: Special Exhibition at Yecheon Museum. Yecheon-gun: Yecheon Museum.
- Yeungnam University Museum (1998). Old Map of Korea. Gyeongsan: Yeungnam University Museum.
- Yonsei University Library (2022). Yonsei University Library. Available: <https://library.yonsei.ac.kr/>

